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

윤 봉 식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은 우리 인민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의 본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문학예술은 조선인민의 가장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부로,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로 되였으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3권 250페이지)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이 마련되던 나날에 주체적인 혁명연극의 하나로서 우리식의 아동극문학의 혁명적뿌리도 내리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주제가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다양한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아동극문학은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를 사상주제적과제로 들고나오지 못하였다.

중세시기 아동문학의 주제사상은 주로 착한 마음과 근면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것, 치부와 탐욕에 눈이 어둡고 린색하며 포악한자들을 미워해야 한다는것 등이였다. 근대시기에도 아동문학에서는 대부분 현실적인 생활보다 구전설화나 전설, 옛이야기에서 소재를 취하고 아이들에게 선한것은 이기고 악한것은 멸망한다는 교훈을 주는것과 같이 도덕교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일부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헤매이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행복한 생활에 대한 소박한 념원, 당대 억압자들의 착취적본성에 대한 폭로와 사회적불만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는 어린이들의 념원과 리상, 작가의 주장이 계급적선에서 주어지지 못하였다.

1920년대 발생발전한 프로레타리아아동극문학에서도 당시의 사회현실과 계급적모순을 신랄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항거의식을 반영하면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투쟁에로의 호소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프로레타리아아동극문학은 어린이들을 참다운 혁명의 새 세대로 키우는 혁명적아동문학으로 될수 없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은 시대적 및 력사적제한성을 가진 이전시기 아동문학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주제를 제기하고 동심적형상속에서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8월추석》을 비롯하여 혁명연극 《복수》, 《순희와 그의 아버지》, 《고아의 기쁨》 등 아동극문학작품들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그리고 일제멸망의 불가피성 등 시대적인 문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제기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온 민족이 항일무장투쟁에 떨쳐나설 때 나라를 해방하고 행복하게 살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는 사상을 동심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8월추석》에서 을손이 오누이는 불쌍한 고아들이다. 그들은 그래도 친척이라고 지주인 외삼촌집으로 온다. 그러나 외삼촌내외는 불쌍한 조카들을 키워주는척하면서 자기 집 머슴으로, 부엌데기로 가혹하게 부려먹으며 모진 악행을 가하여 조카딸을 죽게까지 만든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역에 찬 생활과정을 통하여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된 을손이는 마침내 외삼촌집을 뛰쳐나와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의 길, 나라를 찾는 싸움의 길에 나서게 된다.

명작은 오누이가 지주인 외삼촌집에서 겪

는 비참한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초보적인 료리와 의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압착취하는 지주의 계급적본성을 어린이들의 시점에서 예리하게 폭로규탄하면서 착취계급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그를 반대하여 어린이들도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시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혁명연극 《복수》와 《고아의 기쁨》에서도 혁명투쟁에 일떠나선 어린이들이 혁명의 새 세대로 자라는 과정을 통하여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는 길만이 부모형제들의 원수를 갚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길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연극 《복수》에서 일제의 야수적만행으로 나어진 동호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당하는 비극적운명과 피바다, 불바다속에 잠긴 마을의 비참상은 나라없는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며 1930년대의 비참한 현실이다.

작품에서는 혁명군으로 자라난 동호가 원수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퍼붓는 형상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풀고 원수들을 천백배 복수하는 길은 무장투쟁의 길이며 이 길만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혁명연극 《고아의 기쁨》에서는 부모없고 눈물속에 헤매이던 영철이가 유격근거지에서 마음껏 배우고 노래부르며 생활하는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혁명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온갖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계급의 투사로, 혁명가로 억세게 키우는 따뜻한 어버이품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다음으로 처음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자라나는 소년혁명가들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엇이나 본따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본받을수 있는 인물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아동문학창작에서 나서는 일반적요구이다. 어린이들이 본보기로 삼고 따라배울수 있는 전형을 내세우는 문제는 그들을 혁명의 새 세대들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이전시기 아동극문학에서 내세운 전형들은 도덕적완성을 설교하거나 비참한 현실속에서 눈물에 젖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동정을 자아내는 인물들이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극문학에서도 밝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동경과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반항정신을 가진 주인공들을 내세우고있으나 창작가들의 세계관적 및 사회현실적조건의 제한성으로부터 손에 무장을 들고 반일항전에 떨쳐나선 소년혁명가의 전형은 창조할수 없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은 항일혁명투쟁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깨닫고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서는 소년혁명가들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8월추석》의 을손이, 《유언을 받들고》의 오누이, 혁명연극 《복수》의 주인공 동호의 형상은 피눈물의 바다에서 혁명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는 소년혁명가의 전형들이다.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이 처한 사회력사적환경과 각이한 조건, 개별적인 생활로정에 따라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전형화의 진실성을 보장하였다.

작품들에서는 어린이들의 성격발전의 특성에 맞게 세계관형성의 첫 단계 즉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해나가는 생활묘사에 많은 힘을 돌리었다.

실례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8월추석》의 주인공 을손이의 형상을 들수 있다.

그는 8월 추석날 외삼촌내외에게서 피터 지게 매를 맞는다. 그리고도 뛰쳐나온 동생을 달래며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 죽어도 외삼촌집으로 안가겠다는 동생을 달래던 을손이는 그 집에서 나와 살길을 찾자고 하며 보잘것없는 집이나마 가지러 간다. 그러나 억울하게 도적으로 몰려 매를 맞고 창고에 갇히지 않으면 안되었던 을손이는 머슴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온다. 그런데 동생 정희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와보니 동생은 어머니의 무덤우에 엎드린채 숨져있었다. 동생을 안고 통곡하는 을손이, 그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라 부모들을 해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 빼앗아간 원썬들에 대한 증오의 불꽃이 타번진다. 동생을 데리고 막연하게 살길을 찾아가려던 그는 밝아오는 아침해살을 받으며 투쟁의 길을 향하여 떠난다.

혁명연극 《복수》에서도 어린 주인공의 혁명적성장과정을 예술적으로 잘 그리고있다.

일제의 총칼에 무참히 죽은 부모의 시체 앞에서 발버둥치는 어린 동호의 애절한 울부짖음은 피바다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원한과 신음의 목소리였다. 원한품고 쓰러진 부모의 시체앞에서 흐리는 동호의 피눈물—그것은 부모를 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라 철천지 원썬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의 피눈물이였다.

피눈물을 머금고 부모들의 붉은 피로 물든 눈길을 밟으며 유격대를 찾아 떠났던 동호가 어느덧 총을 잡은 유격대원이 되어 원썬들에게 복수의 총탄을 안기고 마을을 해방하는 모습을 통하여 연극은 민족수난의 시기에 새로운 삶의 길, 투쟁의 길에서 손에 총을 잡고 싸우는 소년혁명가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은 나 어린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적과정에 맞게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확

고히 보장하고 사실주의적전형화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아동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다음으로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극형식과 양상들을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무대형상을 풍부히 하는데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것이다.

작품의 형식을 그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의 합법칙적요구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아동극문학작품들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새로운 현실과 어린이들의 미학정서적요구 그리고 작품의 주제사상적특성에 맞게 종래의 극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극형식과 양상들을 대담하게 창조하였다.

주인공들의 혁명적성장과정을 첨예한 극적갈등속에서 심각하게 그린 정극들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심리정서세계를 깊이 추구한 서정적인 정극, 환상세계를 도입한 낭만적인 양상의 정극 등이 창작되었으며 호소성이 강한 정론적인 정극도 창작되었다. 그리고 동화극문학 《꿀벌과 곰》, 《소는 일떠섰다》와 같이 주제사상적내용과 공연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극문학들이 창작되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아동극문학에서는 종래의 낡은 틀을 마스고 극적인 설화와 방창, 무용 등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종합적이며 립체적인 화폭창조의 귀중한 경험을 마련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8월추석》은 설화와 방창 등 다양한 예술적수단들을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리용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성과 서정성을 더욱 짙게 하였으며 새로운 혁명연극형식을 개척하였다.

작품들에서는 시작과 끝에 설화를 도입함으로써 연극의 공간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연극의 내용을 깊이 리해할수 있게 하였으

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더욱 명백하게 밝힐 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사상정서적으로 강조해주는 방창을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특히 혁명가요의 방창으로 극을 끝맺음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격조높이 강조하고있다.

혁명연극 《복수》의 절정장면에서 펼쳐지는 환희에 넘친 춤장면, 《순희와 그의 아버지》에서 펼쳐지는 행복넘친 래일에 대한 순희의 환상장면 등은 이전시기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으로서 아동극문학의 발전을 추동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조국의 해방을 위한 간고하고 피어린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아동극문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적인 소년혁명가, 혁명의 새 세대의 전형을 창조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키우는 데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에 가장 명확한 해답을 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극문학으로서 우리 인민의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보의 하나로, 주체적인 아동문학발전의 력사적뿌리로 되고있다.

모든 아동문학창작가들은 주체의 문학예술전통을 가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동문학을 혁명적이며 참다운 문학예술로 더욱 발전시켜나아가야 할것이다.